



김시중 회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새정부의 '의지'와 과학기술 선진국

새해가 밝았습니다. 2003년에는 과학기술인 모두에게 늘 환한 웃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선진국들의 화두는 세계 1등 상품 즉 기술혁신적인 새 상품을 몇 개나 보유하는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 석학들은 "21세기의 과학기술은 그 영역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으며, 산업과 연결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면서 과학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세계적 조류와는 달리, 우리의 과학기술환경은 선진국에 비해 취약할 뿐 아니라 연구개발자원의 절대 규모도 빈약하기만 합니다. D램, CDMA, TFT, LCD, 조선, 자동차가 겨우 주력산업으로 우리의 경제력을 지켜주고 있지만, 핵심기술의 부족으로 경쟁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이들의 이공계 기피와 학부모들의 편견으로 인한 이공계공동화 현상, 정치인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무관심과 무분별한 하향평준화 관행, 과학기술력이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라고 말로만 떠드는 일부 정책집행자의 득세 등등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과학기술 관련 사회병리적 현상들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세기적 과학기술 조류에 대응하고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과학기술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과감한 과학기술정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세계 1등 대학을 만들고, 기업 또한 세계 1등 상품을 만들어내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과학기술자들이 밤을 잊고 신나게 연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과학기술인들은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D램, CDMA, TFT, 자동차, 조선 산업분야에서 현재 위치를 고수하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NT, BT 등 이른바 6T의 세계 제패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에서는 지난해 과학기술에 대한 위기를 선언하고 100만 과학기술인 인터넷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민민복과 국가융성을 위한 과학기술인들의 다짐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은 대통령의 과학기술에 대한 철학과 의지에 달려 있다는 교과서적인 정신을 실천하고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로부터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 약속을 받아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총의 노력은 과학기술인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지원이 밑거름이 되어야만 그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과총은 그동안 발행해 온 <과학과 기술> 잡지를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과학기술 월간지로 재편집하여 월정 7000원의 유가지로 발행합니다. 또한 홈페이지(www.kofst.or.kr)도 쇄신, 학회 논문은 물론 과학기술 정보 자료를 보유한 국내 최대의 정보 사이트로 재편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과총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과학기술인 한 분, 한 분을 개인 협력 회원으로 모시고 우리 과학기술계의 숙원을 해결하는 과학기술계의 중추기관으로서 거듭 태어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과학과 기술> 지가 전국민의 과학화에 크게 기여하며 우리나라가 세계 1등국이 되는 엔진의 하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